



5면

국민 참여 교육과정 개정 방안 모색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도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음 2월 10일) 제2741호

대표전화 (063)288-9700

## 신규사업 국가예산 확보 추진논리 구체화

전북도가 지난 1월 발표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2021년 전북형 뉴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 공모대응 등 전략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전북형 뉴딜 실행계획 보고회는 지난 1월 종합계획 수립 후 첫 분기에 진행된 점검으로, 신규사업의 논리 구체화와 공모대응 등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송하진 도지사가 주재하고, 관련 실국장이 참석해, 실국별 수립된 실행계획과 성과지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울러, 이 자리에서 정책형 뉴딜펀드 대응과 향후, 전북형 뉴딜 신규사업 추가발굴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연도별 수립예정인 실행계획은 5년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업별 성과지표에 대한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상황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등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실행계획에는 ▲신규사업의 논리보강 ▲2022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 선제 대응 ▲민자사업 유치 전략 ▲공모대응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 등을 위한 실행로드맵 수립을 강조한

### 전북형 뉴딜 실행계획 보고회 종합계획 수립 후 첫 점검 뉴딜펀드 활용 방안도 모색

다. 특히, 이번 보고회의 화두는 사업성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신규사업의 예산확보였다.

세부적으로 올해 공모대응 사업은 전북도민의 차별화된 감점과 사업 타당성을 강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계속사업 역시 2022년 국가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형 뉴딜의 성공, 도민과의 투자성과 공유를 위해 뉴딜펀드를 적극 활용할 방안도 함께 고민했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주요 민간투자 방안으로 정부에서 2021년부터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 4조원이 조성목표인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시분야(3조원)와 수시분야(1조원)로 나뉜다.

정시 분야의 경우, 지난 2월 26일 운용사 선정이 완료돼 운용사별 자금모집 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펀드가 조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형 뉴딜 2021년 실행계획 보고회'에 송하진 도지사와 실국장들이 실행계획과 성과지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성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사전 운용사별 투자시점과 분야를 파악해 기업-운용사 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보고회에서 실국별도 선도기업 중점 접근, 뉴딜펀드 유치 가능 사업발굴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보고회에서 도는 실행계획을 통해 사업을 지속 점검하고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개선·보완해 정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과 꾸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연계

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우리 전북만의 강점과 사업 논리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전북형 뉴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 1월 전북도내 한파 피해 복구비 지원 확정

### 전주 등 6개 시·군에 총 4억7000만원 지원

전북도는 지난 1월 한파로 도내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6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김제, 고창, 부안)에 4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57ha이며, 그중 감자가 198ha로 전체 피해면적의 77%에 달했다.

시·군별 피해복구비는 부안군이 전체 46%인 2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제시 1억1,100만원, 고창군 6,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재해복구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 예비비를 편성해 피해농가에 복구비를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한파로 인한 시들음, 생육저하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약대를 지원하고, 작물이 고사한 경우에는 타 작물로 파종할 수 있도록 대파대(종자대)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가별로 피해율이 50% 이상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 외 생계 지원비를 2인 가구 기준 77만4,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45만4,000원, 2인 가구 77만4,000원, 3인 가구 100만2,000원 등 가구당 1인 증가 시 22만7,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유호상 기자

## 지역상품권 깡 '계 셋거라'

### 도, 불법유통·부정행위 엄단 이달 중 도내 시군과 일제단속

전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3월 중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정유통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도와 시·군이 집중 합동단속에 나서 올바르고 공정한 지역화폐 이용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단속절차는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 사전분석을 거쳐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된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에서도 이번 단속에 함께 참여하는

만큼 부정유통 단속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명백한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 과태료부과나 환수 등의 재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으로 불법 보관·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이나 불공정행위의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뒤따른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

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발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흐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의 상품권 위탁관리업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상품권 불법거래가 포착되면, 전후 상황을 고려해 불법행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와 빈틈없는 단속을 펼쳐 부정유통 근절을 힘쓸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호치민시 교류 활성화 박차

### 송하진 도지사, 응웬 타인 평 인민위원장과 화상회의

전북도는 지난 19일 송하진 도지사와 응웬 타인 평 호치민시 인민위원장과 스타트업 교류 화상회의를 갖고, 양 지역의 교류 확대를 위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우리나라 경제교류의 중심국가인 베트남에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팬데믹 상황에서 베트남 최대 경제중심지인 호치민시와 온라인 화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지난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호치민시 사이공이노벤이션허브와 스타트업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고, 호치민시 중심부에 스타트업 진출 거점공간인 '코

레투비엣 센터'를 개소했다.

코레투비엣 센터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 기업인 (주)효성의 사업비 지원을 받고, 사이공이노벤이션허브에서 현지 공간을 무상 제공해 스타트업의 동남아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 약 70여개 도내 스타트업이 진출해 스타트업 제품 홍보, 바이어투자 라운지, 화상 상담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현지 진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전북도와 호치민시는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방안과 첨단 농업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양 지역 대표자의 의견 교환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 지사는 코레투비엣 센터를

한국의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지원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과 코레투비엣 센터 활성화를 위해 상호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정기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호치민시 응웬 타인 평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은 호치민시 스타트업의 한국 진출 지원을 전북도에 협조 요청했다.

또한, 호치민시 응웬 타인 평 인민위원장은 전북도 감정 산업인 첨단 농업분야 중 스마트팜 교류를 제안했고,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농업, 식품, 바이오 등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이 밀집돼 있고, 기술확산과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 있어 농업 분야의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호치민시 하이테크 농업 인큐베이션 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스마트팜 관련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